기회와 희망의 가교를 놓자
메릴랜드(Maryland) 가톨릭 주교의 인종적 정의에 대한 서한

2020 년 6 월 15 일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메릴랜드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은 수세기 동안 인종적 불평등과 악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정의의 실현, 모든 생명의 존엄성 인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는 철저한 개선을 위해 아직도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톨릭교가 범한 과거의 죄와 실패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론 가톨릭교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지켜야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 메릴랜드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잔재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는 선봉에 나서야합니다.

메릴랜드의 가톨릭 교회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흑인 가톨릭 신자들의 헌신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마더 메리 랭(Mother Mary Lange)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1828 년 미국 볼티모어에 흑인 아동들을 위한 가톨릭 학교를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녀는 1 년 후에 아프리카 후손의 여성을 위한 수도회인 오블레이드 섭리 자매(the Oblate Sisters of Providence)를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가 기도해야 하는 성인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는 미국 전역 흑인들의 가톨릭 경험의 실상을 간증하고 지도하는 전미 가톨릭 협의회(National Black Catholic Congress)의 본고장인 것은 물론,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섬기는 임무를 맡고 있는 요셉 신부 및 형제(Josephite priests and brothers)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학교를 분리하는 것이 인정되던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전임자 패트릭 오보일 (Patrick O'Boyle) 추기경과 로렌스 쉬핸(Lawrence Shehan) 추기경은 가톨릭 학교와 교구의 분할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 년 3 월 12 일 인종 관계에 대한 강론에서, 당시 오보일 (O'Boyle)추기경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가톨릭 신앙은 그 이름값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사, 우리의 사회, 우리의 미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적은 우리 공동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톨릭은 우리의 것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배경이 되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종차별주의 죄를 종식하기 위한 기도하고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및 미국 흑인들의 부당한 죽음, 그리고 뒤이어 계속되는 시위, 집회, 농성은 우리 모두가 인종 및 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양심이 주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 본성 및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생명이 성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 속의 증오와 적대감을 버릴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5:12)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청, 기도, 실천을 통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함께 치유, 화합을 강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메릴랜드의 가톨릭 주교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종 차별의 종식을 강구하는 법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건강 및 정신 보건 이용, 의미 있는 교육기회, 교도소 개혁,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니셔티브, 차별 반대 노력 지원, 청소년 사법 개혁, 매우 불공정한 사형제도의 종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개혁, 투명성, 인종 차별 철폐에 필요한 입법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 그룹을 출범하는 주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메릴랜드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대화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노력을 잠재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억압되거나 아예 침묵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진실과 정의가 차별과 불공정의 거짓에 승리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종 차별과 분열이 없도록 치유해 주시고, 이해와 희망의 가교를 놓는 우리의 의무에 있어 신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윌리암 에드워드 로리(William E. Lori) 볼티모아(Baltimore) 대주교	윌튼 다니엘 그레고리 (Wilton D. Gregory) 워싱턴(Washington) 대주교
윌리엄 프란시스 말루리 (W. Francis Malooly) 윌링턴(Wilmington) 주교	로이 에드워트 캠벨 주니어(Roy E. Campbell Jr.) 워싱턴(Washington) 보좌주교
마리오 에두아르도 도르손빌 로드리거즈(Mario E. Dorsonville-Rodriguez) 워싱턴(Washington) 보좌주교	마이클 윌리엄 피셔(Michael W. Fisher) 워싱턴(Washington) 보좌주교
아담 존 파크(Adam J. Parker) 볼티모아(Baltimore) 보좌주교	데니스 제임스 매든(Denis J. Madden) 볼티모아(Baltimore) 전 보좌주교(Bishop Emeritus)
브루스 르완도우스키(Bruce Lewandowski, CSsR) 볼티모아(Baltimore) 보좌주교	